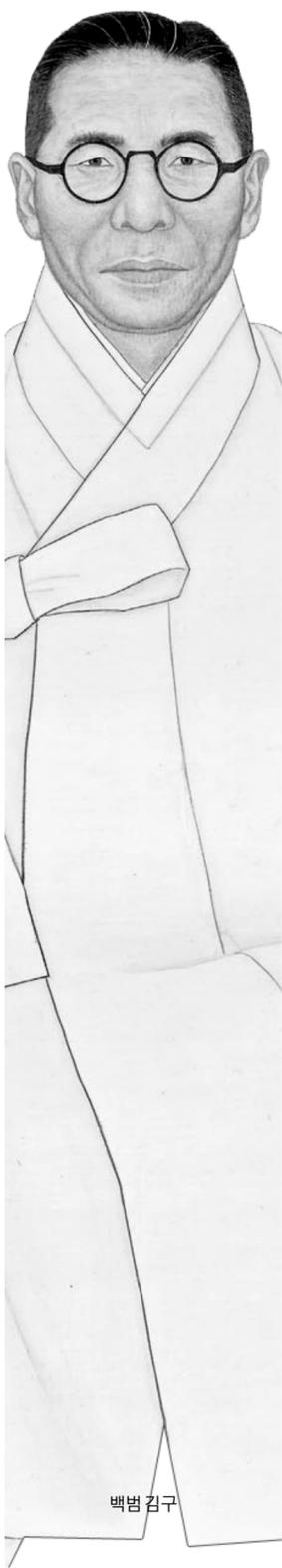


# 광복 70주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읽어보자

## 광복의 의미 되새기는 책 잇따라 출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내 출판계도 발 빠르게 관련 책을 펴내고 있다. 다소 딱딱한 역사가 아닌, 다양한 인물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중요 사건을 다룬 책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도 뜻깊은 독서법이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의 재판 과정을 참관한 내용을 다룬 책과 김구의 친필본을 담은 서적이 나오는 등 항일 인물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특징이다.

10일 출판계에 따르면 서해문집은 김홍식 대표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엮은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를 오는 14일에 맞춰 출간할 예정이다.

안중근 열사가 지난 1910년 10월 대한제국 초대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뒤 일제가 관할한 6번의 공판 과정을 당시 참관자 기록에 의거해 되풀이한다.

재판 현장의 생중계를 지켜보듯 안의사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생생하게 역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의 생각과 숨겨진 진실들, 나아가 우리 역사의 아픈 민낯을 돌아볼 수 있다.

또 서해문집은 제일동포 유학생간첩사건의 기록을 담은 김효순의 '조국이 버린 사람들'을 출간한 데 이어 조만간 역사작가 하지연 씨의 '조선 난민 기쿠치 겐조'도 출간할 예정이다.

기쿠치 겐조는 명성황후 시해 가담자 중 한 명으로, 이후 재야사학자로 활동하며 명성황후와 대원군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을 저지른 인물이다.

열화당은 내달 윤문을 거치지 않은 백범일지의 친필본을 옛 세로쓰기 형태로 출간한다. 애초 광복절에 맞춰 출간 예정이었으나, 최종 교정과 편집이 늦어져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일정이 순연됐다. 친필본과 한글본을 우선 출간하며, 이후 영인본과 자료집도 별도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나남은 중국 작가 위텐런이 지은 '누가 일본을 통치하는가: 일본의 관료구조 해부'의 번역서를 광복절 기획 신간으로 내놓는다. 정부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료체제가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그 같은 구조의 속살을 깊이 들여다본다.

또 이담은 중일전쟁 당시 일제의 난징 함락에서 대학살까지의 긴박하고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생생한 현장사진과 삽화, 회고록으로 엮어낸 총 4권의 '난징

함락과 대학살'을 오는 14일에 맞춰 번역 출간한다.

2004년 작고한 저자 저우얼푸(周而復)는 중국의 문화부 차관격인 부부장 지낸 인물이며, 주전경(朱振庚) 화중사범대학미술과 교수가 시대의 분위기를 잘 살린 삽화를 그려넣었다.

한편 일본 시인의 눈으로 보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 등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미 많은 서적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의 평화사상가이자 시인인 이시카와 이쓰코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은 10대 소녀인 아사코와 야기 자매, 야기의 친구 유미가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 책에는 '위안부'의 진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밝힌 김학순 할머니와 강덕경, 문옥주, 황금주, 이용수 할머니 등의 생생한 삶이 담겨 있다. <삼천리·1만 5000원>

항일 운동의 대표 종교인 만해를 조명하는 책도 주목받고 있다. 만해 한용운의 삶과 철학을 담은 평전 '만해, 그날들'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과정의 정치사회적 격동기의 다양한 사건과 만해의 철학이 그려졌다. <푸른역사·1만5000원>

또 한국과 중국 양국의 첫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1901~1988년)의 삶을 조명하는 평전도 출간됐다.

소설가 정혜주(53)씨의 '날개옷을 찾아서'는 권기옥이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조선과 중국 양국의 최초 여성 비행사가 되는 과정을 담았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 중국 공군에 먼저 투신해 항일전선에서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그렸다. <하늘자연·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 아이 첫 들 음식 만들어보자”

### 전통문화관, 체험행사 참가 시민 20명 모집

우리 민족은 태어나고, 늙으며 죽는 등 삶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고 기리는 음식을 만들어 상에 올렸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멸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음식은 남도의례음식으로 보존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남도의례음식장과 함께 우리 아이 첫 들에 올릴 음식을 만들어보는 '사랑과 기쁨을 담은 우리 아이 첫 들 음식' 행사를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10회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232-15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참가할 시민 20명을 모집한다.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통문화관 전통음식체험전수실에서 진행된다. 남도의례음식장 민경숙 선생이 강사로 나서 '돌 상차림' 재현과 붉은 팔고물을 이용해 잡곡을 쫓고 무명장수를 비는 '수수경단'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다. 체험비 무료. 문의 062-232-15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작가회의 '5월의 역사' 임철우 초청 강좌

### 13일 5·18기념재단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가 매주 목요일 5·18기념재단 영상실에서 '문화예술작품으로 읽는 5월의 역사' 강좌를 진행 중인 가운데 13일(오후 6시) 강사로 작가 임철우(사진)를 초청한다.

임 작가는 이날 '봄날과 오월' 주제로 펼쳐지는 강좌에서 오월의 가치와 기억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임 작가의 대표작 '봄날'은 5월 광주의 참상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오월을 구체적인 서사 차원에서 접근한 소설로 여러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광주항쟁 열흘 동안의 현장을 짚조각해 보여준다.

임 작가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



남대학교 북학생이었다. 그는 "당시에 겪었던 열흘 간의 체험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체로 소설의 소재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광주의 5월을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작가는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개도독'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1988년 '붉은방'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버지의 땅', '그 섬에 가고 싶다', '황천기담' 등을 펴냈다.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 개설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문화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기존 회원 대상으로는 접수 마감됐으며 신입 회원은 11일부터 등록 순으로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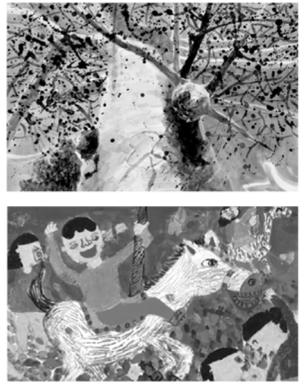
유아 대상으로는 빅 블럭, 조이아트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린이수채화, 수학기예, 동화구연 등이 진행된다. 도예, 샌드아트, 도예, 샌드아트 등 성인 강좌도 마련돼 있다.

도예, 샌드아트 등 성인 강좌도 마련돼 있다.

또 캘리그래피,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미술심리치료사, 예술철학으로 보는 작품감상 등 프로그램이 매주 화요일 열린다. 특히 '북유럽 패턴 디자인', '브릭로 어린이 건축교실', '차향 가득한 규방다례', '더 와이즈 빅블록', '네버랜드 미술놀이터', '플레이키즈스쿨' 등이 새롭게 개설됐다. 문의 062-613-718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호남예술제

#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자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육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술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임슬기(비아중3), 김민희(광주여고2) | 2007년 제52회-조은지(전남중3), 김해주(광주여고2) | 2008년 제53회-김재현(일곡초2), 김민정(광주중앙초4), 신재민(광주중앙초5), 정소리(전남중3), 이은주(전남여고3) | 2009년 제54회-이호현(동림초2), 김세민(광주교대부설초3), 정은재(신암초5), 이주희(광주경신중2), 진재영(첨단고2) | 2010년 제55회-김준서(마지초1), 임하리(순천남초2), 박지현(광주송원초3), 이세림(광주송원초6), 이가림(일곡중2), 박상아(광양제철중3), 노하은(여수여고2), 김다영(호남삼육고2) | 2011년 제56회-최원창(진남초1), 박가은(유덕초3), 이시호(매곡초5), 전혜주(광주북성중2), 범지선(수피아 여고2), 조아리(대성여고3) | 2012년 제57회-이예원(고실초1), 조은송(광주송원초3), 김민정(용두초5), 김민혁(정덕중1), 정윤미(살레시오여중3), 이인혜(광주여고1) | 2013년 제58회-성세경(금당초1), 권유선(광주계림초4), 정재윤(광주송원초6), 강민지(광주동성여중3), 정지윤(광주여고2) | 2014년 제59회-정윤실(광주송원초1), 김예린(광주계림초4), 정다연(문남초5), 정다연(대성여중2), 문지윤(정덕중3), 윤화인(전남여고2), 박혜영(조대여고3) | 2015년 제60회-김윤서(광주송원초2), 정요훈(정덕초3), 김민지(서광초3), 천미성(용두중3), 오승희(삼무고2), 박신영(광주여고2) | 2006년 제51회-김성희(광주팔곡초5), 박주연(동아여중2), 김지수(인현청량중3) | 2007년 제52회-조혜민(광주송원초2), 김하연(동아여중3), 정다윤(동양고2) | 2008년 제53회-김민영(유안초4), 이주희(동아여중3), 한유나(대광고2), 신미희(보문고3) | 2009년 제54회-최지윤(광주송원초1), 송성혁(송의중1), 백재열(인양고3) | 2010년 제55회-박동현(두암초4), 조은(광양동초4), 황현웅(광주송원초5), 김소연(동아여중2) | 2011년 제56회, 차진우(광주초4), 김유진(광주송원초6), 김민빈(경신고3), 김민정(경신고3) | 2012년 제57회-김남현(광주송원초4), 심현지(문정고3), 차나연(삼일여고3) | 2013년 제58회-전유민(유덕초4), 손상원(광주삼육초5), 정소영(대성여고3) | 2014년 제59회, 이상재(광주송원초4), 박민우(광주송원초6), 류강희(여도중3), 선해경(금호중앙고3) | 2015년 제60회-김지우(광주송원초5), 정지윤(동아여중3), 공해지(광주장덕고3) \*수상당시 학교명과 학년을 표기하였습니다.

